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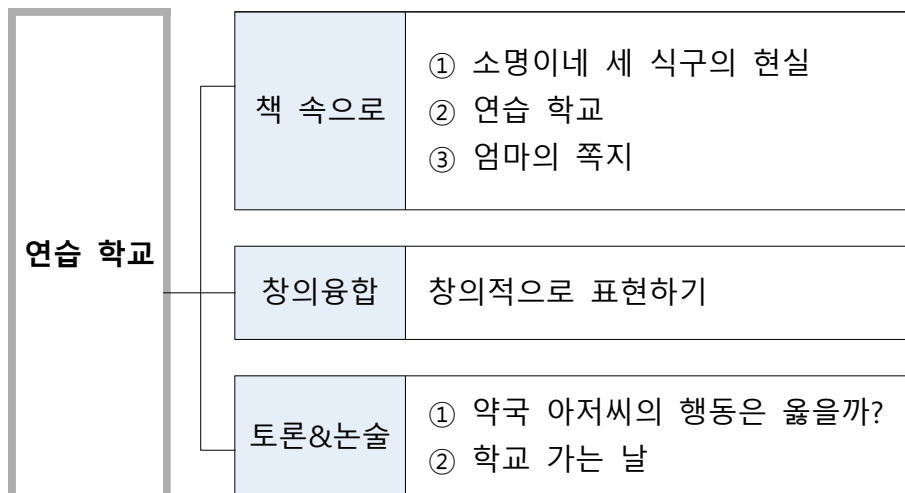
연습 학교

- * 글: 김해등
- * 그림: 박재철
- * 출판사: 웅진주니어
- * 정가: 8,000원
- * 분량: 104쪽
- * 대상: 초등 3학년

· 책 소개

표구점을 하는 아빠 엄마와 행복하게 살던 소명이와 소희는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과 가정 경제를 감당하지 못한 엄마의 무기력증으로 인해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합니다. 큰 상실감에 빠진 엄마는 종일 누워만 있고, 소명이와 소희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기놀이, 시장구경 등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소명이 남매에게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자 소명은 소희를 데리고 부두에 묶여 있는 버려진 배에 들어갑니다. 소명은 소희와 강아지 멍치와 함께 좁은 배 안을 ‘연습 학교’라 부르며 꾸미기도 하고, 이야기 수업도 하면서 학교 놀이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소나기에 배가 휩쓸리게 되고, 소명과 소희 앞에는 아빠를 꼭 닮은 말향고래가 나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된 엄마는 무기력함을 털고 소명과 소희를 진짜 학교에 데려가기로 약속합니다.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연습 학교』의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보세요.

번호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예)	(제목을 보고) 연습 학교는 무엇을 연습하는 학교일까? (앞표지 그림을 보고) 남자 아이는 턱을 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1)	
(2)	
(3)	

2. 『연습 학교』의 뒤표지 글과 그림을 보면서 본문에 나올 이야기를 짐작해봅시다.



연습 학교는 부두 맨 끝에 묶여 있는 조그만 배이다.
며칠 간 지켜봤는데 그 배만 바다에 안 나갔다. 어쩌면
오랫동안 버려진 배인지도 모른다. 배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니까, 연습 학교로도 안성맞춤인 것 같다.

① 그림에 보이는 두 아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

② 그림에 보이는 두 아이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읽은 내용을 정리해요.

※ 다음은 『연습 학교』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각 빈칸에 들어갈 말을 파악하여 쓰세요.

① 엄마가 하던 ()이 망해서 나(소명)와 엄마, 동생 소희는 바닷가 마을 맨 꼭대기 집으로 이사를 왔다.



② 이사를 온 후, 우리는 ()에 가지 않는다. 엄마가 전학을 시켜주지 않아서다.



③ 아빠는 병에 걸려 많이 아팠다. 나에게 직접 깎은 ()를 선물로 주고 돌아가셨다.



④ 엄마는 술을 마시고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술약을 사러 ()에 갔다.



⑤ 나는 조그만 동네에 우리 ()이 안 좋게 날까 봐 걱정이 되었다.



⑥ ()와 나는 학교에 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⑦ 우리는 부두에 묶여 있는 낡은 ()를 연습 학교로 삼았다. ()를 짜고 교실을 꾸민 뒤 읽기 수업을 했다.



⑧ 갑자기 ()가 오더니 배가 부두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다 지쳐 잠이 들었다.



⑨ 어디선가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 연습 학교를 훌쩍 들어 올렸고, 깨어 보니 우리는 어느새 ()에 돌아와 있었다.



⑩ 엄마는 ()을 나가고 우리는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장면을 찾으면서 읽어요.

※ 『연습 학교』를 읽으면서 인상 깊은 장면을 찾고, 어떤 점이 인상적인지를 정리해보세요.

파트	인상 깊은 장면이나 문장	어떤 점이 인상적인가요?
(예)	소희가 담장 밑에 돌 몇 개를 쌓았다. 그리고는 한 발로 딛고 올라가 흔들여 댔다. 소희 몸이 기우뚱기우뚱 움직였다. 받침돌이 무너져 소희가 넘어질 것만 같다. (본문 28쪽)	돌 위에서 기우뚱하는 모습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소명이와 소희의 위태로운 현실과 겹쳐 보인다.
꼭대기 집		
삐악 암호		
말향고래		
가자미눈		
연습 학교		
아빠고래		
너럭바위 인형극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소명이네 세 식구의 현실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우리가 올라왔던 골목도 한눈에 들어왔다. 위에서 보니 구불구불한 사다리 같았다.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올라온 거나 다름없었다. 뒤늦게 아찔했다. 우리가 살 곳은 주방 딸린 방 하나인데, 우리 식구 셋이 누우면 딱 맞을 만큼만 됐다. 그래도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건 맘에 든다.

(나) “엄마! 학교, 학교! 머리띠, 머리띠!” 소희는 이것저것 엄마가 해 줘야 할 것들을 불러댔다. 나도 방구석에 있는 가방을 챙겨 들었다. 입던 옷 그대로 잠들었으니까 가방만 메면 학교에 가도 된다.

엄마는 끄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났다. 앞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 뒤로 넘겼다. 눈이 퉁퉁 부어 다른 사람 얼굴 같다. 엄마는 앉아 있기도 힘이 들어 보인다. 방바닥을 짚은 손이 바르르 떨렸다.

엄마는 소희 가방을 힘겹게 잡으며 말했다. “나중에 엄마하고 같이 가.”

(다) 아빠가 다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울 소명이, 용감하지?”

“나 용감해!” / “그러니까 엄마를 잘 지켜줘야 해. 소희도…….”

“걱정 마, 아빠.” / “힘들거든 말향고래한테 말해. 아빠라고 생각하고…….”

1. (가)는 소명이네 가족이 꼭대기 집으로 이사 온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소명이네 가족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짐작해보세요.

나(소명)	
엄마	
동생(소희)	

2. (나)에서 엄마는 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까요?

⇒

3. (다)에서 아빠는 나(소명)에게 왜 말향고래 조각품을 선물했을까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연습 학교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약국 아저씨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엄마가 술은 왜 마셨니?”

“.....” 나는 끝까지 대답 안 했다. 아저씨는 약을 다 골라 놓고도 내주지 않고 계속 말을 붙였다. 나중에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왔는데..... 여행은 아니고, 살러 왔단 말야. 음, 그러니까 너흰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갑작스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씀이야. ㅎㅎ, 더군다나 너희 엄만 꼼짝 않고 술만 마시고 너희들은 학교에도 안 보내. 근데 왜 학교엔 안 보낼까? 응?”

(나) 불현듯 우리가 학교에 못 가는 꺼림칙한 이유를 찾아내려고 꼬치꼬치 캐묻던 약국 아저씨와 부동산 아저씨가 떠올랐다. 조그만 동네에 우리 소문이 안 좋게 날까 봐 겁이 났다.

(다) 연습 학교는 부두 맨 끝에 묶여 있는 조그만 배이다. 며칠 간 지켜봤는데 그 배만 바다에 안 나갔다. 어쩌면 오랫동안 버려진 배인지도 모른다. 배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니까, 연습 학교로도 안성맞춤인 것 같다.

(라) 배 안은 그런 대로 널찍했다. 날씨 탓인지 낮인데도 어두웠다. 나는 봉지에서 빈 병을 꺼냈다. 바닥에 쓰다 만 양초와 성냥이 보였기 때문이다. 빈 병에 양초를 꽂아 넣었다. 심지에 불을 붙이자 배 안이 안방처럼 환해졌다. 갑판에 널브러진 그물이며 밧줄들이 눈에 들어왔다.

난 급식 시간을 만들어 놓고, 천 원에 빈 병 판 돈을 보태어 빵을 사 올 참이다. 사실 밥보다는 빵이 더 맛있으니까 소희도 좋아할 것이 분명했다.

(마) 교실이 살짝 흔들렸다. 가까이 배가 들어오는 모양이다. 빈 병에 꽂힌 촛불도 흔들렸다. 촛불이 쓰러질까 봐 불안했다. 밖에 앉은 멍치가 킁킁 짚었다.

1. (가), (나)에서 나(소명)가 이웃들의 관심을 불편하게 느낀 까닭은 무엇인가요?

⇒

2. (다)에서 나(소명)는 연습 학교를 왜 부둣가 버려진 배로 정했을까요?

⇒

3. (라), (마)에서 나(소명)와 소희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찾아 써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엄마의 쪽지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얼마쯤 지났을까? 까만 섬 하나가 우리 곁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소희와 나는 별떡 일어섰다.

“아빠고래다!” 소희가 손뼉을 짹짹 치면서 외쳤다. 그러자 까만 섬, 아니 고래가 연습 학교를 땅 위로 훌쩍 들어 올렸다.

소희와 나는 연습 학교에서 기어 나와 고래 등 위에 납작 엎드렸다. 땅은 바다로 변하고 바다는 뭉치네 약국을 지나 우리 집 앞까지 이어졌다.

“애들이 배엔 뭐 하러 들어갔대요?” “쭈쭈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저기서 혀를 쭈쭈 찼다. 파도가 갯돌에 짜작짜작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소꿉놀이라도 했나 봐요.” “개가 짓었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고, 고맙습니다.” 울먹이는 엄마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눈에 힘을 질끈 쥐고 끝까지 뜨지 않았다. 점점 엄마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메아리쳐 왔다.

(나) 엄마가 안 보였다. 구석에 신문지로 덮은 밥상이 보였다. 나는 무릎걸음으로 밥상 앞으로 기어갔다. 쪽지가 있었다.

엄마, 오늘부터 일 나간다. 내일 엄마랑 학교 갈 거니까 책가방 미리 챙겨 놔.
배는 절대 타지 말고.

1. (가)에서 ‘나(소명)’와 소희를 구해준 것은 누구일지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세요.

① 고래가 구해주었다.	② 마을 사람들이 구해주었다.

2. (나)에서 엄마가 쓴 쪽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3. (나)의 엄마 쪽지에 ‘나(소명)’가 답장을 한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



독서 후 창의융합_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1. 말향고래를 설명한 아래 글을 읽고, 말향고래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말향고래

고래의 한 종류. 향고래, 향유고래라고도 한다. 몸체와 머리가 매우 육중하며, 검은 청회색 또는 갈색이다. 전 세계의 온대 및 열대 바다에 서식하며 대체로 무리 지어 생활한다.

2. 소명이는 소희에게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소명이라면 소희에게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소개해보세요.

3. 소명이와 소희 가족이 이웃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소명이와 소희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응원의 말을 해주세요.



독서 후 토론&논술 ① 약국 아저씨의 행동은 옳을까?

※ 다음 글은 ‘나(소명)’와 소희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약국 아저씨가 꼬치꼬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약국 아저씨의 이러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토론해봅시다. 둘 중 한 가지로 자신의 의견을 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근거를 들어보세요.

“엄마가 술 마셨니?”

“.....” 나는 대답하기 싫어서 입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는 부동산 아저씨를 쏘아봤다. 부동산 아저씨가 우리 얘기를 사방팔방으로 하고 다닌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모르는 약국 아저씨가 올 엄마 얘기를 할 턱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아저씨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킁킁 콧소리만 냈다.

약국 아저씨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엄마가 술은 왜 마셨니?”

“.....” 나는 끝까지 대답 안 했다. 아저씨는 약을 다 골라 놓고도 내주지 않고 계속 말을 붙였다. 나중에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왔는데..... 여행은 아니고, 살러 왔단 말야. 음, 그러니까 너희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갑작스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씀이야. ㅎㅎ, 더군다나 너희 엄마 꼼짝 않고 술만 마시고 너희들은 학교에도 안 보내. 근데 왜 학교엔 안 보낼까? 응?”

“.....” 나는 아무 말 않고 손톱만 잘근잘근 물어 댔다.

약국 아저씨가 소명이네 형편을 꼬치꼬치 물어본 것은 옳을까?

옳은 행동이다.

옳은 행동이 아니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전

1. (예시답안)

- (1) (제목을 보고) 연습 학교라는 것이 실제로도 있을까?
- (2) (앞표지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 (3) (앞표지 그림을 보고) 남자아이는 어딘지 기운이 없고 시무룩해보인다.

2. (예시답안)

- ① 남매인 것 같다. (오빠와 여동생)
- ②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 독서 중

◎ 이야기를 간추리며 읽기

- ① 표구점
- ② 학교
- ③ 말향고래
- ④ 약국
- ⑤ 소문
- ⑥ 소희
- ⑦ 배, 시간표
- ⑧ 비
- ⑨ 집
- ⑩ 일

◎ 인상 깊은 장면을 찾으면서 읽기

(가이드)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답안 생략.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소명이네 세 식구의 현실

1. (예시답안)

나(소명): 작은 방이라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 방이 너무 좁구나. 아이들이랑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소희: 바다가 멋지다.

2. (가이드) 아빠가 돌아가시고 표구점도 빛만 남긴 채 문을 닫게 되어, 엄마가 너무 슬프고 힘이 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예시답안) 엄마는 지금 무기력한 상황이라 아이들에게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3. (예시답안) 아빠가 없더라도 소명이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 책 속으로 ② 연습 학교

1. (예시답안)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날까 봐

2. (예시답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

3. (예시답안) 갑판에 널브러진 그물이며 밧줄들, 흔들리는 교실과 촛불 등

◎ 책 속으로 ③ 엄마의 쪽지

1. (가이드) 둘 중 한 가지로 자신의 의견을 정하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예시답안)

① 고래가 구해주었다.	② 마을 사람들이 구해주었다.
소명이나 소희 둘 중 한 사람만 보았다면 착각일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까만 고래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고래등에 올라탔다고 했기 때문에 아빠고래가 구해준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엄마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을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떠내려가는 배를 발견하여 아이들을 구해준 것 같다.

2. (예시답안) 엄마가 더 이상은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소명과 소희를 잘 돌보

[예시답안과 가이드]

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

3. (예시답안)

엄마,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어 정말 기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혼자 힘드시지 않게 소희도 제가 잘 돌볼게요.
우리 기운 내서 행복하게 살아요!

◎ 창의융합_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1. 답안 생략.

(참고) ▼말향고래



2. (예시답안)

내 이름은 뽀뽀 롱스타킹
-엄마도 아빠도 없이 혼자 사는 뽀뽀가 씩씩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난다.

3. (예시답안)

소명아, 소희야! 너희 엄마가 일을 나가서 안 계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너희만 좋다면 우리는 대환영이니 망설이지 말고 꼭 와!

◎ 토론&논술 ① 약국 아저씨의 행동은 옳을까?

(가이드)

[예시답안과 가이드]

- 학생들에게 입장을 정하고, 글이나 자료로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뒷받침하여 주장을 펼치도록 합니다.
- 한 쪽 입장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쪽 입장을 수용하여 단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떠올리도록 생각을 이끌어 줍니다.

(예시답안1)

약국 아저씨가 소명이네 형편을 꼬치꼬치 물어본 것은 옳은 행동이다.

어린 아이가 엄마의 술약을 사러 약국에 오고 학교도 가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누구든지 사정이 궁금할 것이다. 소명이네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 아저씨가 이웃에 관심을 갖고 물어본 것은 옳은 행동이다.

약국 아저씨가 소명이네 형편을 꼬치꼬치 물어본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집집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 약국 아저씨는 소명이네를 도와주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명이네 가정에 대한 호기심으로 물어본 것이다.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정도의 지나친 관심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 토론&논술 ② 학교 가는 날

(가이드)

-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 소명이의 첫날은 어땠는지 상상해봅니다.
- 소명이의 엄마가 다시 힘을 내게 된 계기와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 사건과 감상을 고루 넣어 일기를 쓰도록 지도해주세요.

(예시답안)

[예시답안과 가이드]

내 소원을 들어준 말향고래

학교에 간 첫 날이다. 연습 학교가 아닌 진짜 학교 말이다. 연습 학교에 딱 하루 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바로 진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연습 학교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시간표를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소희를 잘 돌보아야 한다는 걱정뿐이었다. 하지만 진짜 학교는 생각만 해도 즐거웠다.

처음 가는 학교라서 마음은 조금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정말 가벼웠다. 내가 서울에서 이사 왔다고 하니 반 아이들이 서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급식 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금방 친해졌다.

아빠가 만들어 준 말향고래가 정말 소원을 들어주었나보다. 엄마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났고, 소희와 나는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말향고래에게 내가 엄마와 소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말했는데, 그 소원도 이루어질 것 같다.



독서 후 토론&논술 ② 학교 가는 날

※ 연습 학교에서 사고가 난 후, '나(소명)'와 소희는 다시 진짜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학교에 등교한 첫 날, '나(소명)'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음 <조건>에 맞게 소명의 일기를 써보세요.

<조건> 다음 낱말을 모두 한 번 이상 꼭 넣으세요.

연습 학교 아빠 말향고래 엄마

날짜: 년 월 일 요일 날씨:

제목: